

제주사회복지신문

>2016년 2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00호



사랑과 희망을 담아 만드는
제주사회복지신문 지령 100호

2007년 9월 1일 창간
2016년 2월 1일 100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제주사회복지신문이
 창립 30주년을 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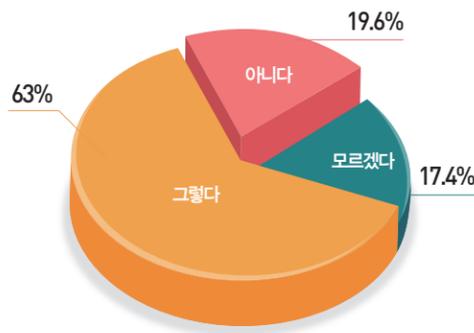
따뜻한 사람, 따뜻한 복지 30년 슬로건으로 제주 사회복지계의 상상과 연대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창립 30주년 그리고 지령 1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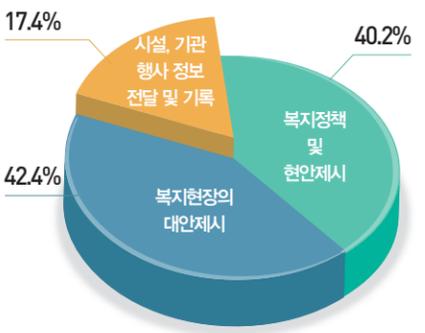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제주사회복지신문이 나란히 창립 30주년과 지령 100호를 맞으며, 새로운 도약을 모색합니다. '따뜻한 사람, 따뜻한 복지 30년'을 슬로건으로 제주 사회복지계의 상상과 연대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사회복지신문 100호 기념 설문

Q1 제주사회복지신문이 복지현장 소식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2 제주사회복지신문이 다뤄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현장의 현안발굴 대안으로 제시해야”

도민 150명 설문 참여

제주사회복지신문이 100호를 기념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제주도민 및 사회복지근무자들은 제주사회복지신문이 '지역복지현장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된 이번 설문에는 도민 및 사회복지 관계자 150명이 참여했다.

설문에서 도민들은 사회복지소식을 어떤 방법으로 접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방송, 신문 등 언론(40.9%)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다음 순으로는 시설·기관 소식지(27.5%), 페이스북 등의 SNS(22.8%), 광고(6%), 홈페이지·블로그(2.7%)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 중 '제주사회복지신문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62.6%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63%가 제주사회복지신문이 복지현장의 소식을 잘 담고 있다고 응답했다. 신문의

내용 구성에 대한 설문도 이뤄졌다. 제주사회복지신문이 다뤄야 할 내용에 대한 설문에서 '복지현장의 대안 제시'가 42.4%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다음 순으로는 '복지정책 및 현안제시'가 40.2%, '시설·기관 행사 정보 전달 및 기록' 17.4%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주사회복지신문에서 가장 많이 보는 기사로는 소식마당 40.2%, 기획기사 25%, 시설탐방 16.3%, 시론·칼럼 7.6% 등으로 조사됐다.

지면소개

- 특집 2면
지령 100호를 축하합니다
- 기획 5면
제주사회복지협의회가 걸어온 길
- 특집 3면
숫자로 보는 제주사회복지신문
- 특집 7면
(좌담회) 사회복지현장 어떻게 홍보할까
- 기획 4면
협의회 역할 강화 방안 설문
- 특집 8면
1호 신문 소장 독자 인터뷰

지령 100호를 축하합니다

희망의 불 밝히려는 노고 덕분에 제주는 한층 따뜻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깊이 있는 정보전달과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대변해 온 「제주사회복지신문」의 1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제주의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 희망의 불을 밝히려는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제주의 온도는 한층 더 따뜻해지고, 제주의 가치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사회복지신문」이 100호 발행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듯, 제주 역시 제2 도약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도제 실시 70주년, 특별자치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섬이라는 한계를 기회와 자원으로 재창조하며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제주도정은 앞으로 더 큰

변화와 새로운 성장을 위해 도민이 주체가 되는 제2의 도약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촘촘한 현장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며, 복지로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발행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과 애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자명단

정정숙 회장
제6회 명예의 전당 등재

정정숙 제주여성활동지원센터 회장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선정하는 '제6회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등재자로 지난달 12일 선정됐다.

1989년부터 최근까지 26년 동안 총 7,741시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 온 정정숙 회장은 매월 6회 이상 노숙자, 독거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 제공,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상담지원 및 활동참여, 말기 질환환자 대상 호스피스 활동 등의 봉사 활동을 제주도 전역에서 펼쳐 왔다.

'30년 지기' 회원
감사패 수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달 12일 제주협의회 회관 2층 삼다수홀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2016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에서 창립시부터 현재까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설 및 기관, 개인에게 '30년 지기' 감사패를 수여했다.

다음은 감사패 수여명단 ▲단체 △제주모자원 △천사의 집 △홍익아동복지센터 △제남아동복지센터 △제주보육원 △삼인원 ▲개인 △김정현 △한형범

사회복지 가족들이 더 큰 금지와 보람 갖도록 동기 부여 해야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장

제주사회복지신문 1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들은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쏟는 헌신과 희생에 비례하여 복지의 질과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사회복지는 헌신과 희생이 동반되기 때문에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을 여러

분들이 담당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수록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들이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선진국으로 가지 위해

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이면서 따뜻한 복지체계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주사회복지신문이 그 주역이 되고, 또 사회복지 가족들이 더 큰 금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사회복지신문, 우리 사회의 통합과 따뜻함의 표상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제주사회복지신문〉 100호 발간을 모든 제주교육 가족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100호의 위업을 이뤄내신 고치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님과 고경운 편집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협의회 관계자들에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삶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살만하다'

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 순간 사랑과 희망, 정책적 대안을 전하는 '제주사회복지신문'이 확고히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통합과 따뜻함의 표상이 되어 주시는 '사회복지신문'에 뜨거운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도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매체로 자리매김하기를 소망

합니다.

제주 교육 역시 '함께 웃는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제주사회복지신문'이 소중한 지혜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0호 발행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모든 사회복지인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및 창립 30주년 기념식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달 12일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회관 삼다수홀에서 '2016년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주 사회복지인들의 화

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창립 30주년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각계 기관·단체장, 사회복지시설·단체장 및 근무자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희망찬 새해인사를 비롯해 시루떡 절단식, 도내 다수의 사회복지시설 기관의 협조로 마련된 신년행운권 추첨순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참가자 모두는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연합회에서 준비한 떡국오찬도 함께했다.



▲ 지난달 12일 2016년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및 도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각계 인사들이 시루떡 절단식에 참여하고 있다.

숫자로 보는 제주사회복지신문 100호

균형감 있는 사회복지현장 보도

제주지역 사회복지현장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 정책을 전달해 온 제주사회복지신문이 2016년 2월 1일자로 지령 100호를 맞았다. 약 9년 간 100호를 발행한 제주사회복지신문이 복지현장의 소식을 어떻게 다뤘는지 분석했다.<편집자 주>

다양한 사회복지인의 구슬땀 알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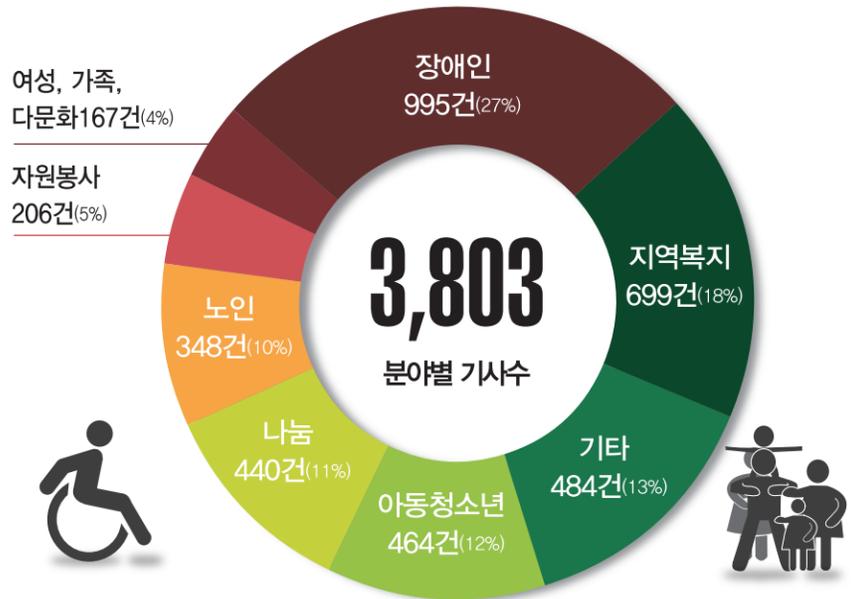
지난달 제주사회복지신문은 100호 특집을 기념해 지금까지 제주사회복지신문이 사회복지현장을 어떻게 보도해 왔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제주사회복지신문이 보도한 전체 기사는 3,803건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분야별로 본 기사의 수는 △아동청소년 464건 △여성가족다문화 167건 △노인 348건 △장애인 995건 △지역복지 699건 △나눔 440건 △자원봉사 206건 △기타(정신, 노숙인, 보건 등) 484건이다.

제주사회복지신문은 총 100

호의 신문을 발행하며 제주지역 복지현장을 속속들이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시설·단체들의 소식은 물론 나눔문화, 봉사활동의 다양한 모습을 지속해서 보도한 점도 눈에 띈다.

앞으로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다양한 분야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홍보가 취약한 소규모시설들을 위한 취재를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여러 직종의 사회복지인들의 구슬땀에 대해서도 꾸준히 보도해 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보도 현황>



다양한 기획·연재 기사로 꾸준한 인기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다양한 기획 및 연재 기사를 마련해 독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어 왔다.

100호 신문의 지면에 오른 유형별 기사는 일반보도가 2,8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는 시의와 현안에 맞춘 기획기사 190건, 시론·칼럼 187건과 기고 121건, 사진기사 55건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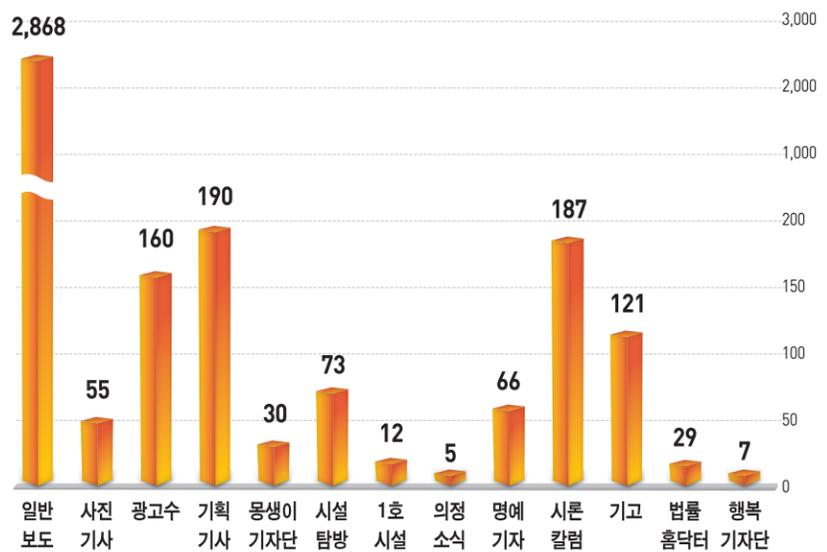
이 가운데 현장을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명예기자단, 동생이기자단 등 객원 기자단의 활동과,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사도 인상적이었다.

시설탐방 등의 기사를 통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서비스 현황과 특징을 소개했으며, 법률홈닥터를 통해 주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법률 지식도 쉽고 간명하게 알렸다.

최근 연재를 시작한 도정소식과 현안마다 마련되는 기획 기사를 통해 도내 복지정책을 알리는 데도 집중했다. 더불어 시론·칼럼을 통해 제주의 복지현장을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유형별 보도 현황>



전국으로 퍼져 나가는 제주사회복지 소식

월간으로 발행 중인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도민과 사회복지인 등 전국의 독자들에게 두루 배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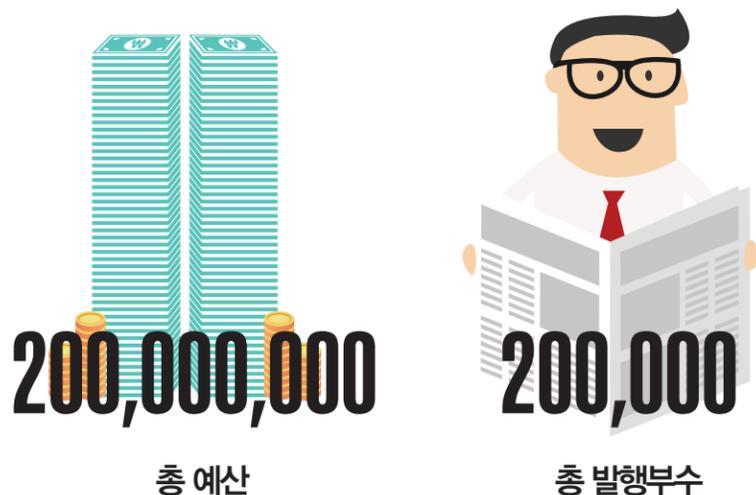
창간부터 현재까지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매월 1일자를 기준으로 2,000부 이상을 도내 및 전국의 독자들에게 전달했다. 100호까지의 발행부수를 모두 합하면 200,000부 이상인 셈이다. 예산으로 보면, 그간 한 호당 약 200만원씩 총 2억원이 투입됐다.

제주지역의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사회복지현장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제주사회복지신

문이 독자들의 책상 위에 놓이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모아졌다. 지역 사회복지현장의 근무자들은 각 기관의 활동을 알리고자 매월 자료를 정리해 보내왔으며, 객원기자 및 담당자들도 복지현장의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앞으로도 제주사회복지신문은 제주의 사회복지현장의 활약상과 유익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제주 유일 매체로서 500호, 1000호의 역사를 이어가며, 지역복지 파수꾼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

<예산 규모 및 발행부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역할 및 기능강화 방안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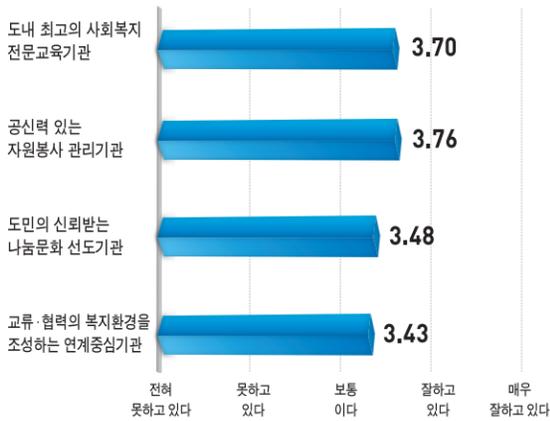
“협의·조정 기능 강화해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제주협의회) 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 휴완, 본 회 이사)는 제주협의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제주협의회 역할 및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행했다. 조사연구결과 가운데 일부를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편집자 주>

응답자 일반적 특성

설문대상 | 제주협의회 등록 단체회원시설 대표자·근무자 148명
 성별 | 대표자-남 25명, 여 22명, 무응답 1명 근무자-남 42명, 여 57명, 무응답 1명
 근무경력 | 대표자- 3년 미만 4.2%(2명), 3~5년 미만 8.3%(4명), 5~7년 미만 8.3%(4명), 7~10년 미만 22.9%(11명), 10~15년 미만 18.8%(9명), 15년 이상 37.5%(18명)
 근무자- 3년 미만 18%(18명), 3~5년미만 13%(13명), 5~7년 미만 11%(11명), 7~10년 미만 22%(22명), 10~15년 미만 23%(23명), 15년 이상 13%(13명)

Q1 협의회가 제시하고 있는 4대 비전 수행수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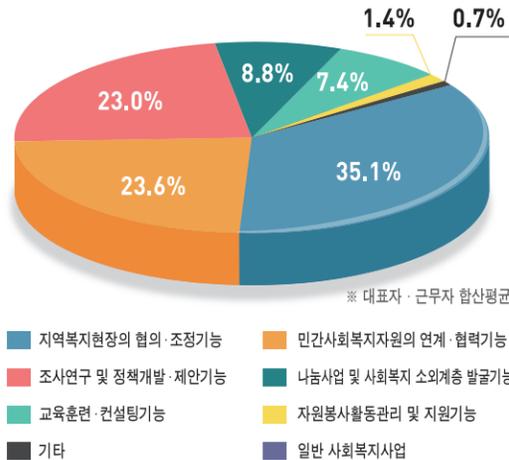


협의회 4대 비전 수행수준 ‘보통이상’

‘제주사회복지협의회가 제시하고 있는 4대 비전의 수행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대표자와 근무자 모두 ‘보통 이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각 비전별 수행 수준을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 ‘도내 최고의 사회복지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수준은 평균 3.70, ‘공신력 있는 자원봉사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수준은 평균 3.76, ‘도민의 신뢰받는 나눔문화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수준은 3.48, ‘교류협력의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연계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수준은 3.43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 아카데미’로 대표되는 교육사업, ‘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관리·지원사업,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운영을 통한 나눔사업, 회원관리·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연계·협력사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인식되고 자리잡은 결과로 보인다.

Q2 협의회가 집중해야 할 기능은?



민간 사회복지자원 연계 기능도 중요

‘제주사회복지협의회가 집중해야 할 기능’에 대한 질문에는 대표자(38%)와 근무자(33.7%) 모두 ‘지역사회복지현장의 협의·조정기능’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기능으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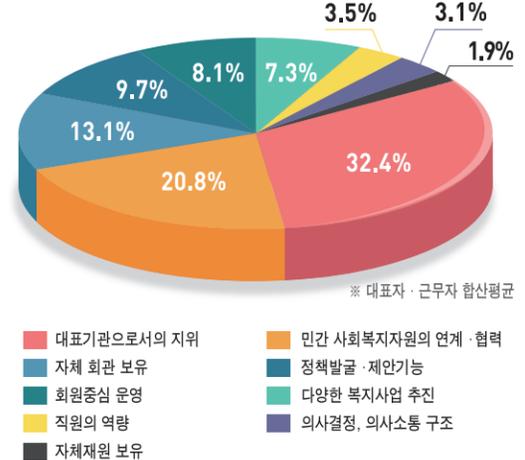
그 다음으로는 ‘민간 사회복지자원의 연계·협력기능’을 선택했다(대표자 23.6%, 근무자 24.5%).

이러한 결과는 협의·조정기능을 협의회의 주요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더욱 적극적인 협의·조정기능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민간사회복지계의 합의를 통해 협의회의 협의·조정기능을 제도화함으로써 협의회의 고유기능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협의회 역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복지현장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사업 방향을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Q3 협의회의 강점은?



협의회의 강점은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제주사회복지협의회는 강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대표자(32.5%)와 근무자(32.4%) 모두 ‘민간 사회복지계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민간 사회복지자원의 연계·협력기능’ (대표자 21.7%, 근무자 20.5%), ‘자체 회관 보유’ (대표자 15.7%, 근무자 11.9%)라고 답했다. 즉, 제주협의회가 ‘민간 사회복지계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지역사회복지현장의 협의·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진단됐다.

반면, ‘제주사회복지협의회는 약점’으로는 대표자인 경우 23.4%가 ‘회원중심의 운영체계’를 선택했고, 근무자인 경우는 20.2%가 ‘정책발굴제안기능’을 내놓았다. 그 다음으로 대표자 22.1%가 ‘의사결정, 의사소통 구조’를 약점이라고 꼽은 반면 근무자인 경우 15.6%가 ‘회원중심 운영체계’를 제주협의회는 약점으로 꼽았다.

민간사회복지계의 합의 통해 협의·조정기능 제도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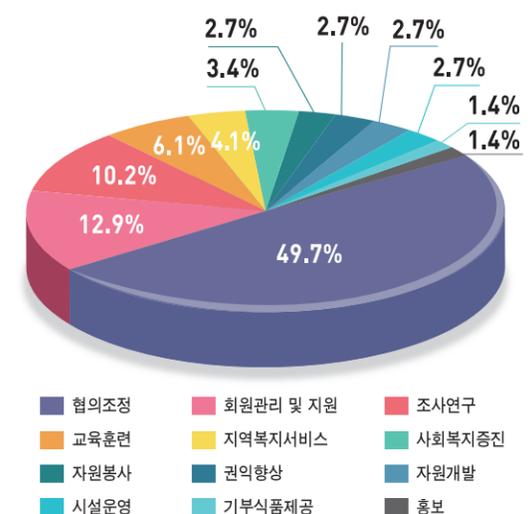
‘제주사회복지협의회는 역할을 고려할 때 향후 가장 중요시해야 할 사업순위’에 대한 질문에 대표자(53.1%)와 근무자(48%) 모두 1순위로 ‘협의·조정사업’을 선택했다. 이는 앞서 제시된 설문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서 지역사회복지현장에서는 제주협의회에 ‘협의·조정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협의·조정사업’이 제주협의회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임을 보여 주고 있다.

앞서 민간사회복지계의 합의를 통해 협의회의 협의·조정기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져 상시적으로 지역복지현안에 대해 협의하

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주협의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민간복지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협의회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직능별 사회복지단체와 개별 회원시설 대상의 이해와 욕구를 충실히 수렴해야 한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업무시스템도 갖춰야 할 것이다. 또한 도와 의회 등을 상대로 제주협의회가 민간 사회복지계를 대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과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과제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Q4 협의회가 향후 가장 중요시 해야 할 사업 순위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걸어온 길

상생과 조화, 연대와 협력의 환경 조성

매년 괄목 성장... 다양한 위원회 운영으로 의사소통 구조 강화



2016년 1월 28일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제주협의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986년 1월 28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주지회로 창립된 제주협의회는 1992년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 선정, 1998년 독립법인으로 재창립, 2004년 광역푸드뱅크 지정, 2008년 전국 최초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건립,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1호 푸드마켓 개점, 2012년 '25년사(史)' 발간, 2015년 '사회복지 인권 사랑방' 개소 등 제주지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해 오고 있다. 제주협의회는 창립 당시 12명(단체회원 9명, 특별회원 3명)이었던 회원규모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235명(단체회원 161명, 개인회원 74명)으로 확대됐으며, 예산 규모는 100배(약 13억원)로 성장했다. '사회복지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수료생은 25배 성장하여 누적인원 46,781명, 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인원은 125,889명에 이르고 있다. 광역푸드뱅크와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식품기부규모는 사업이 시작된 2004년 이후 15배 증가

한 연간 15억원 이상의 규모로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제주협의회가 창립된 1986년 시행된 제1기 자원봉사자 교육 수료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단' (1986년 9월 5일 창단, 이후 '작은세상 봉사단'으로 개칭)은 현재 5개 봉사단 조직으로 확대돼 제주협의회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다. 제주협의회 봉사단 조직은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시절 사회복지지시설 운영에 도움을 제공했다. 제주지역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본부인 제주협의회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일회성 보상과 격려가 아닌 남다른 자부심과 명예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를 발굴하는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을 운영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질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다.

매년 1월 제주지역 사회복지인이 함께 하는 '신년 인사회', 9월 '사회복지의 날' 기념사업, 10월 '제주 나눔 대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사회복지인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있으며 도민사회에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고취

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92년 수탁법인 선정 이후 24년간 운영하고 있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매 평가 때마다 최우수 복지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8년 2월 법인보육시설로 개원한 아라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시설로서 2015년 '평가 노하우 경연' 결과 전국 1위를 차지할 만큼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외형적인 성장 못지않게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도 이뤄졌다. 4대 운영비전과 3대 추진 전략 설정으로 제주협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상생과 조화, 연대와 협력의 지역사회복지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사회와 총회 중심이었던 의사소통 구조는 자문위원회를 비롯해 교육·조사연구·자원봉사·정책·시설위원회 등의 운영으로 전문화, 다양화됐다.

끝으로 '사회복지시설 윤리경영 실천선언'의 주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와 시설근무자를 위한 '사회복지 인권 사랑방'을 개소하는 등의 노력은 도민사회에서 신뢰 받고 존중 받는 사회복지계를 만들기 위한 의미있는 노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정리=김성건 사무국장)



▲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이전 현판식(1999년 1월)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 준공식(2008년 1월)



▲ 제16회 제주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2015년 9월)

창립 30주년 기념 인터뷰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로 협의회 30년 역사 일궈”



고치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Q. 제주협의회 30년 역사에 대한 소회는?

사회복지라는 말조차 생소한 시기에 당시 협의회를 창립하기 위해 애쓰신 분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느낀다. 그리고 전국 최초의 회관 건립 등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희생과 헌신으로 내실있는 발전을 이끌어 오신 강도아 초대회장과 이동한 회장님을 비롯해 30년

역사의 주역으로 활동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뿐이다.

Q. 창립 30주년을 맞는 올해 계획은?

사회복지계의 존중과 감사, 상생과 연대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제주 사회복지 1호 시설' 발굴 및 '제주 사회복지 공헌패' 시상 등 조심스럽게 해 왔던 '제주 사회복지 역사찾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한다. 이를 위해 '제주사회복지 온라인 역사관'의 문을 열고 사회복지 원로와의 인터뷰를 사회복지신문 101호부터 매월 연재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고 소규모시설 지원 등을 확대해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

Q. 창립 30주년을 맞아 회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올곧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준 회원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주협의회가 다른 지역 협의회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기까지에는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협의회 30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30년의 역사도 회원들의 저력에 힘입어 자랑스럽게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위원의 글

‘지령 100호’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한 영 조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나무의 나이를 ‘수령(樹齡)’이라고 한다. 신문의 나이는 ‘지령(紙齡)’이다. ‘령(齡)’자를 써서 나이를 나타내는 사물은 나무와 신문이 대표적이다. 숫자나 나이를 세는 ‘령’에는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장수의 의미가 담겨 있다.

장수 속에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 세상의 풍파를 곳곳하게 이겨내며 나가는 저력이 녹아 있다. 나무가 그렇다. 수령 100년, 수령 1000년에는 오랜 세월 산증인으로서 연륜이 숨쉬고 있다.

나무가 자라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정착할 때까지는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동물의 먹이로 먹

히거나 척박한 바위, 물속으로 떨어졌을 때는 앞날을 보장 받을 수 없다. 알맞은 환경에 정착한 아주 일부만이 생명을 피워 올린다. 씨앗이 땅에 제대로 정착하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운명의 결정이다.

신문의길 나무의 일생과 같아

성장의 과정 또한 치열하다. 주변의 나무들과 경쟁한다. 빛을 모으고 가지를 뺏어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모든 힘을 쏟는다. 봄·여름·가을·겨울을 맞으며 듚직한 나무로 자란다. 성숙기에 도달한 나무는 다음 세대를 위해 토실한 열매를 맺고 남긴다. 이렇게 성공한 나무는 무병장수의 상징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으로 남는다.

신문의 길도 나무의 일생과 비슷하다.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담는 것이 신문의 역할이다. 기록하는 일에는 어찌 기쁜 일만 있겠는가? 때로는 아픔을 함께 하며 호흡한다. 질곡과 고난의 일까지 종이에 옮겨 놓는다.

제주지역에서 유일하게 복지

계를 대변하는 제주사회복지신문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2월1일자로 지령 100호를 맞는다. 2007년 9월 1일 창간 해 매월마다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로는 9년째이다. 100호 속에 담긴 이야기 하나하나가 따뜻하고 아름답다. 한 건의 기사, 한 줄의 문장 속에는 복지계의 삶과 열정이 흘러넘친다. 행간마다 스며있는 피와 땀방울이 녹아 있다.

복지계 상록수로 자리매김 할 것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100호 속에 모여져 작은 나무만큼 자라고 있다. 앞으로 지령 200호, 500호, 1000호의 연륜 속에 복지계의 생사고락을 차곡차곡 담아낼 때 뿌리 깊은 튼튼한 나무로 성장할 것이다. 그때에는 복지신문이 복지계의 상록수로 자리매김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번 지령 100호의 기념은 또 다른 전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 더욱 사랑받는 복지신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기고

함께 가는 걸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판이 된다



문 순 애
일도1동주민센터

2013년에 시작된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가 2016년도부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되어 새로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읍면동 단위에서 활성화되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이다.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복지대상자 발굴과 지역자원 발굴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도1동에서도 그동안 복지위원협의체를 통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공적 지원과 지역자원 연계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활동을 해왔다.

주변 상가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던 위원 분들이 많은 까닭에 취약계층 발굴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복지시설·기관 및 여러 자생단체회원 등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앞으로의 활동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일도1동은 산지천 주변을 중심으로 알콜의존증이 있는 이들과, 과거 동문시장을 근거로 해서 삶을 꾸렸던 어르신들이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한 채, 경제적 사정과 노환으로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사례가 많은 게 특징이다.

전입해 오는 알콜의존 이들의 경우 대부분 가족과 단절되

어 있으며 근로능력보다는 근로의욕이 없는 경우가 많다. 삶의 의욕조차 없는 이들은 방한 칸에 박혀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아예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아 신원 파악도 되지 않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외에도 근로는 하는데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안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있다.

일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처럼 가족은 물론이고 사회와도 단절될 우려가 있는 이들을 찾아내기 위해 공적 지원으로 연계하거나 지역자원을 끌어와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활동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할 계획이다.

또한 나아가 일도1동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실현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가는 걸음을 큰 폭으로 걷고자 한다.

칼럼

단 한 사람 청중을 품다



김길웅
수필가·본지 편집위원

장사익, 그를 ‘이 시대의 소리꾼’이라 한다. 또 있다. 가장 한국적으로 노래한다고 붙여진 ‘신토불이 가객’.

“하얀 꽃 찔레꽃/ 순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이라는 그의 노래가 낯익다. 읊듯 흥얼거리듯 한 구어체다. 물소리이다 때론 살랑대는 바람결이다. 노래 속으로 빨려들면 가슴 시리고 콧잔등이 시큰해 온다. 한의 정서가 배어 있어서다.

그가 이 노래를 하면, 멀쩡하던 청중들이 운다. 노랫말처럼 울어 버린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의 노래가 주는 묘한 카타르시스로 낯선 경험이다.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하고 목을 놓아 노래할 뿐, 그의 노래엔 악보가 없단다. 파열할 것 같은 그만의 쉼 쉼소리. 장단에 어우러진 특유의 꺾이는 몸짓과 온몸으로 쥐어짜듯 하는 그의 노래. 듣다 보면 어느새 멍멍해지면서 눈물이 난다. 그의 노래는 단지 듣기 좋은 노래가 아니라 심금을 울린다.

인생을 담은 내공이 빛은 노래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닌, 내공이 빛은 노래다. 요즘 가수들이 어렸을 때 화려하게 데뷔하고 나서 인생을 배우는데, 그는 반대다. 25년 동안 직장을 전전한 그. 보험회사, 무역회사, 주유소, 딸기장수, 가구 외판원, 청계천 전자상가에서 일하다 독서실을 거쳐 마지막으로 카센터에서 일했다. 그에게 인생역전이 이뤄진 게 사물놀이패에서 태평소를 불면서다. 바로 그때 <찔레꽃>을 쓴 게 계기가 됐다.

그의 노랫소리를 일러 하늘에 응답하는 땅의 소리라 한다. 작고 가녀린 몸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폭발할까. 쏟아내는 소리는 마침내 폭포처럼 장엄하다.

공연은 늘 객석이 넘친다. 잊을 수 없는 공연이 있었다고 회고한다. 일본에서 단 한 사람을 위해, 한 시간 동안 공연한 일. 말기 암 환자가 죽음을 앞두고 꼭 한 번 듣고 싶다고 해 그 친구들이 마련한 무대였다. 청중이 단 한 사람이었더니 숙연했으리라. 오직 한 사람의 청중을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는 그. ‘단 한 사람 청중’으로 객석에 앉았던 환자는 닷새 뒤 세상을 떠났다 하니, 감동적인 공연이었다.

‘단 한 사람 청중을 품다’ 세상에 이런 공연이 있었다니, <찔레꽃>처럼 눈물 난다. 암 환자, 그것도 일본인을 품었다. ‘단 한 사람 청중’을 깊이 품었다. 장사익은 그래서 우리를 울게 한다.

좌담회 ‘사회복지현장, 어떻게 홍보할까’

이용자 특성 맞추고 다양한 매체에 적응해야

제주지역사회복지시설·단체들이 의미있는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히 이어 가고 있음에도 이를 홍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제주사회복지신문은 지령 100호를 기념해 사회복지현장 홍보담당자들과 함께 사회복지현장을 어떻게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할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Q. 어떻게 홍보업무 시작하게 됐나?

서순덕: 우리 재단은 NGO다 보니 모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우리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려야 했어요. 기업과 도민들에게 우리 기관이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모금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양창근: 처음 들어올 때부터 홍보업무를 맡았어요. 신문스크랩만 한 달 내내 하기도 했죠. 당시에는 SNS도 많지 않았고, 홍보라 해봐야 리플릿이나 캠페인 진행 정도가 전부였어요.

오세라: 홍보업무를 맡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아 어떻게 보도자료를 써야 하는지 고민이 많아요. 계속 우리 기관의 업무를 어떻게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알려나가야 할지 고민하며 연습하고 있는 시기예요.

Q. 가장 인상 깊었던 홍보사례는?

박성배: 저희 복지관에서는 연 4회 ‘아라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라동 주민들이 기자로 활동하면서 마을이야기를 담고 있죠. 아라신문에는 마을의 문제도 다수 다뤘어요. 경찰서나 치안센터가 없는 점을 지적했고, 학교 주변에 인도와 가로등이 없어 위험하다는 기사도 썼죠. 결국 모두 공론화시켰어요.

백금탁: 예전에 푸드마켓이 제주시에만 있어서 서귀포에 거주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노인들이 불편한 몸으로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잠깐 물품을 수령한 뒤, 다시 1시간 넘게 돌아가는 과정을 반복했어요. 이런 상황을 기사를 내고, 서귀포시장도 만났어요. 그 후 얼마 뒤, 서귀포시에도 푸드마켓이 개점했어요.

서순덕: 언론에 비쳐진 어려운 아이들의 소식을 듣고, 70세가 넘은 고령의 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하면서 받은 연금의 일부를 매월 3만원 씩 기부하겠다고 찾아온 적이 있어요.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이 도움을 주신거죠. 참 보람된 순간이었죠.

백금탁: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읽죠.

“다양한 SNS 매체 활용해 홍보할 때”



백금탁 사회부장
한라일보

“사회복지 홍보는 참여 이끌어내야”



양창근 사무국장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협의회, 홍보 교육을 많이 열어주길”



이진협 홍보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건조하게 기관이나 단체명을 홍보하기 보다는,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고 뒤에 기관이나 후원 방법 등을 담은 방법을 택하면 자연히 기관에 대한 관심도 생기게 되지 않을까요.

양창근: 사회복지홍보는 일반 기업의 홍보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참여를 이끌어 내야죠. 그래서 찾은 것이 제주맘 카페예요. 저희는 위탁부모를 찾아야 하는데, 육아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은 카페여서 딱이었죠. 이렇게 다양한 소셜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참여 방법을 다변화 시켜야 하는 거죠.

이진협: 지역주민 홍보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기관을 알리기 위해 리플릿을 들고 주민들을 만나는 구전홍보에 나섰어요. 또 마라톤 대회에 장애인과 2인 1조로 참석해 기관 홍보와 장애인식개선 활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도 잡았답니다.



▲ 지난달 22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소회의실에서 홍보담당자 5인과 한라일보 백금탁 기자와 함께 사회복지와 홍보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주민참여 마을 라디오 운영 해보고 싶어”



박성배 팀장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도움받을 분이 오히려 도움주기도”



서순덕 팀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용자 특성에 맞는 홍보 방법 찾아야”



오세라 홍보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오세라: 이용자 특성에 맞춘 홍보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관은 어르신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버연극단과 찾아가는 인형극을 열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의식개선에 나서고 있어요. 기관을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을 리서치해보면 이런 홍보 방법이 꽤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Q. 언론을 통한 홍보 중요하다. 사회복지 소식 언론에 어떻게 홍보할까?

이진협: 처음 홍보업무를 맡고, 언론보도를 위해 보도자료를 써 가면서 계속 다시 써 오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겨우 결재를 받고 보도요청을 해도 언론에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았죠. 아마 보도자료를 쓰는 전문성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고민했어요.

양창근: 언론보도는 보도된 기사나 콘텐츠를 바탕으로 더 많은 홍보를 이어나갈 수 있어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아는 후배들이 기자로 있어도 지면에 기사 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론보도에 노력을 많이 기울였죠. 좋은 기자분과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니 어떤 기자가 어떤 성향의 기사를 쓰는지도 조금씩 파악이 돼요.

백금탁: 한 모금단체의 홍보담당 선생님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선생님은 보도자료를 보낼 때 꼭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글과 더불어 자료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보도자료를 보냈다는 내용을 문자로 남기죠. 그리고 한 달에 두 번은 신문사를 찾아옵니다. 이메일로 보도자료만 보내는 기관보다는 눈이 더 갈 수밖에 없죠.

Q. 현장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무엇 필요하며, 어떤 홍보를 펼쳐보고 싶나?

박성배: 마을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주 1~2회 두 시간 정도 마을에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도 알리고, 음악도 틀어주면서 마을 사람들 간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데 도움주고 싶어요.

양창근: 홍보 관련 전문 컨설팅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홍보전략을 한번 제대로 짜 보는 거죠. 또 제주지역 홍보담당자의 모임도 만들어 봤으면 해요. 서울에서는 홍보담당자들이 모여 홍보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며 모임도 가지고 캠프도 열고 있어요.

이진협: 홍보 업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협의회에서 언론이나 홍보관련 교육을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 홍보기법에 목이 말라 있다고 생각해요.

백금탁: 사회복지홍보 담당자들이 모여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기자들을 초대해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 실시간으로 사회복지계의 소식을 올려 주면, 정보를 취하기 편하고 놓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SNS 매체에도 익숙해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1호 신문 소장 독자 인터뷰

“더 많은 사회복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지난달 제주사회복지신문은 지령 100호를 기념해 '제주 사회복지신문 1호를 찾습니다' 이벤트를 진행했다.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서다. 1호 신문을 소장하고 있는 독자들을 찾아가 신문에 대한 이야기와 의견을 들었다. <편집자 주>

작은 규모의 시설·기관 위해 먼저 문 두드리는 신문되길



조 순 옥
주사랑어린이집 원장

Q. 제주사회복지신문을 소장하게 된 계기는?

당시 제주사회복지신문이 창간될 때, 명예기자로 위촉돼 활동했다. 원래 육지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하다가, 제주로 내려오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자 마음먹었다. 당시 나이가 40대 초반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당시까지 사회복지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러

다 학교에서 우연치 않게 제주사회복지신문 명예기자단을 모집한다는 공지를 봤다. 기회가 싶었다. 그 후 기자로 지원했고, 명예기자로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었다.

Q. 그 동안 제주사회복지신문을 보면서 느낀 점은?

명예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회복지 현장을 찾아 다녔다. 현장의 시설들을 방문하고, 기관장을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시설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오고 있었는지 알게 됐다. 또한 신문을 보고 기자 활동도 하면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게 됐다.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신문의 소식마당에 많은 시설과 단체들의 이야기가 실려 좋은 것 같다. 홍보가 부족한 작은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에게는 정말 필요한 공간이라고 본다.

Q. 제주사회복지신문에 한마디 전하신다면?

예전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을 했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신문을 통해 우리 기관의 소식을 많이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왔다. 그렇지만, 쉽지가 않았다. 인력도 부족하고, 일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했다.

어렵겠지만 이런 곳들을 위해 먼저 문을 두드려줬으면 좋겠다. 규모가 큰 곳보다는 작은 곳의 이야기를 발굴해 보도하는 신문이 되기를 바란다.



강 경 생
구독자(일도이동)

신문 통해 세상에는 참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 느껴

Q. 제주사회복지신문을 소장하게 된 계기는?

아들이 제주대학교 학생 때, 여러 봉사활동을 했었다. 여러 사회복지시설을 다니며 노력봉사도 하고 목욕봉사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자신이 나왔다며 제주사회복지신문을 들고 왔다. 당시 신문에 나온 아들의 모습이 참 신기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견하기

도 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좋은 일을 했던 것을 기록한 것이기에 스크랩해 뒀다. 또한 그 인연에 현재 아들이 사회복지업무를 맡아 일을 하고 있다.

Q. 그 동안 제주사회복지신문을 보면서 느낀 점은?

신문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의 활동모습을 보면서 감탄할 때가 많았다. 특히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랬다. 봉사는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어쩔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존경스러웠다. 그리고 평소 접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와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다. 이런 좋은 일이 있었는지 알기가 쉽지 않은데,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이야기를 상세히 다뤄 주니 세상에는 참 따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Q. 제주사회복지신문에 한마디 전하신다면?

벌써 100호 발행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다. 오랜 기간 사회복지소식을 알려 주셔서 고마운 마음이 든다. 앞으로도 더 많은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다뤘으면 좋겠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들도 상세히 알려 줬으면 한다.



고 근 호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선임 사회복지사

Q. 제주사회복지신문을 소장하게 된 계기는?

200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당시 복지관에 처음 입사하고 나서, 홍보업무를 맡았다.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로 들어온 터라, 업무파악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복지 관련 정보가 담긴 소식지를 스크랩하기 시작했다. 특히 제주사회복지신문 1호는 당시 복

지관 관장님도 나오고, 상징성도 있어 보여, 여러 소식지와 함께 보관했다.

Q. 그 동안 제주사회복지신문을 보면서 느낀 점은?

홍보, 노인사업, 자활사업, 후원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 왔다. 매번 업무에 임할 때마다 고민이 많았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제주사회복지신문이다. 사회복지시설들

의 다양한 활동상을 지면에 소개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 신문을 보면서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어 유익하다. 또한 법률상담터와 같이 전문적인 분야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주는 점도 좋다.

Q. 제주사회복지신문에 한마디 전하신다면?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는 사회복지 현장의 소리가 고정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을 밝혀주길 바란다. 둘째는 더 많은 독자들이 볼 수 있는 신문이 됐으면 한다. 현재보다 더 많은 도민들이 신문을 구독하고, 이를 통해 제주의 사회복지를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